

STORY

스토리

챕터#1 라 프레임

요약) 가상현실 공간을 구축하여 만든 게임, 라 프레임.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루시드 사는 게임 회사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어와 게임 캐릭터가 동기화 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마련하였다. 게다가 루시드 사가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를 인수하면서 라 프레임의 가상현실 공간에서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등 거대한 소셜 미디어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었다. 때문에 라 프레임은 게임이면서 일상 생활까지 깊게 침투한 메이저 플랫폼이 되었다.

한편 시원고등학교의 라 프레임 동아리 노스웨트는 대세를 거스르며 여전히 게임플레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전학생(플레이어)가 입부하게 된다. 그는 기억은 물론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노스웨트 멤버들과 전학생은 입부 테스트로 서울 맵의 '해치' 토벌에 나선다. 플레이어는 신입답지 않은 정교한 솜씨로 테스트를 통과한다. 이후 플레이어가 게임을 로그아웃하려던 찰나, 평소에 보지 못했던 특이한 종류의 버그를 발견한다.



STORY

#프롤로그

불이 꺼져 있는 방, 화면에서 광고 영상이 나온다.

화면 속 목소리 :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의 게임 세상, <라 프레임>...

어둠 속에서 어느 남자의 손이 움직여 리모컨을 들고, 화면을 꺼버린다.

??? : 어쩔 수 없다지만, 항상 거슬려. 내가 만든 게 가상이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남자. 라 프레임을 만든 루시드 사의 회장 채필우다.

채필우 :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 현실이란 것도 결국 사람의 뇌가 내키는 대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잖아.

??? : ...

채필우 : 반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군가의 게임이 아니란 보장이 어디 있어? 누군가가 상상한 세상이 아니란 보장말이야.

어딘가로 걸어가는 채필우와 다른 누군가.

채필우 :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의 주인이 될 거야. 내 상상대로 이루어지는 게임. ...이건 내 망상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망상과 현실의 싸움이 되겠지.



#튜토리얼

<라 프레임> 게임에 접속한 시원고등학교의 동아리 노스웨스트.

이들은 입부희망자인 플레이어를 맞이할 겸 게임의 보스를 잡고 있었다.

서울 맵에 자리잡은 보스 몬스터 '해치'가 테스트의 대상이었다.

무너진 경복궁 맵을 배경으로 전투가 시작되려던 찰나, 플레이어의 시야에 검은 그림자가 눈에 띈다.

한백지 : 조심해, 신입!

게임 내 요소라기엔 이질적인 그림자에 플레이어의 시선이 팔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해치가 거대한 앞발을 휘두른다.

경청아 : 윗.

경청아가 몸을 날려 플레이어를 구해낸다.

부원 경청아가 몸을 날려 플레이어를 구해낸다.

경청아 : 웃싸.





STORY

한백지 : 정신차려, 신입! 아까까지 잘하다가 갑자기 왜그래?

일어나서 다시 자세를 잡는 플레이어.

정주율 : 하하, 저희 부장 성격이 좀... 그렇죠? 그래도 신입이라고 부른다는 건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거니까 조금만 힘내요.

한백지 : 다 들리거든? 다들 얼른 뛰어와서 자리 잡아! 신입은 해치의 오른쪽을 맡아!

한백지의 지휘에 따라 위치를 잡은 플레이어. 노스웨스트 부원들이 네 방향으로 한 명씩 자리를 잡아 해치는 기색을 살핀다.

한백지 : 좋아, 거의 다 왔어! 여기서 셋 하면 공격을 들이붓다가, 주율이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스킬을 쓰는 거야.

해치 : 크르르릉...

기색을 살피던 해치는 제일 먼저 공략할 상대를 정했는지, 점프 하기 위해 무릎을 굽힌다.

한백지 : 하나, 둘, 셋! 갈겨! 한백지가 쏜 총알이 해치의 무릎에 적중한다. 해치가 주춤한 틈을 타 노스웨스트의 총공격이 시작된다.

정주율: 그럼 갑니다!





STORY

정주율이 기술을 사용하자 그녀의 확성기 모양의 광선총에서 붉은 기운이 감도는 파장이 나왔다. 파장은 노스웨스트 멤버 전원을 감싸고, 그 즉시 멤버들의 전투력이 향상되었다.

한백지 : 좋아! 이제, 신입 네 차례야!

이어서 플레이어가 스킬을 쓸 차례가 되고, 플레이어는 처음이지만 익숙한 느낌으로 커맨드를 입력하여 스킬을 발동한다.

플레이어의 총이 푸른 빛을 내자, 주변 공기가 진동하더니 언제라고도 할 수 없이, 푸른 레이저가 발사되어 해치를 꿰뚫는다.

한백지 : ...!

정주율 : 우와...

예상보다 강력한 플레이어의 공격에 해치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태로 내몰리고, 다음 순번을 기다리던 경청아가 대검을 들고 해치의 위로 뛰어든다.

한백지 : 앓, 잠깐...

정신을 놓고 있던 한백지는 자기도 모르게 스킬을 사용한다. 한백지의 로켓런처에서 여러 발의 미사일이 발사된다.

경청아 : !





STORY

미사일은 해치에게 적중하고, 해치의 거구가 가릴 정도로 커다란 폭발을 일으킨다.

스킬을 쓰기 위해 해치에게 메달려있던 경청아 역시 폭발에 휘말린다.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해치.

한백지 : 이겼다!

정주율 : 백지, 너무하네. 청아가 쓰러뜨릴 뻔 하니까 바로 뺏어가는 것 좀 봐.

한백지 : 아, 아니거든?

경청아 : 부장, 나 뽀글머리 났어.

한백지 : 미, 미안해...

정주율 : 하지만 백지가 본인이 하이라이트를 독식하도록 설계를 했는데도, 그걸 얹어버릴 정도로 신입의 스킬이 강력했어.

한백지 : 그러니까 말이야... 독식하려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겼으니까 나가서 마저 애기해보자.

한편 플레이어는 해치의 시체 너머로 보이는, 아까 전에 보았던 검은 그림자를 다시 한번 보고 있었다.





STORY

분명 정상적인 게임의 모습은 아니었다.

어떤 버그인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한백지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한백지 : 신입, 안 오고 뭐해! 로그아웃 하고, 부실에서 결과 말해줄게!

챕터#2

요약) 신입 멤버 플레이어의 가입을 축하하며 노스웨스트 동아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그리고 즉석에서 노스웨스트 최강을 가리기 위한 동아리 내 PVP 대전이 열린다. 결과는 플레이어의 승리. 가장 먼저 탈락한 부장 한백지는 분통을 터뜨리고, 강력한 신인의 등장
에 일동 놀라워한다.

라프레임에서 로그아웃하자, 무너진 경복궁이 있었던 디스토피아 분위기의 풍경이 점차
흐려지더니 VR장치와, 간식,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가전용품 등으로 어지러운 부실의
풍경이 드러난다.

한백지 : 모두들, 왔어?

정주율 : 네, 왔어요~

한백지 : 좋아, 그럼 거두절미하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STORY

정주율 : 두구두구두구...

한백지 : 합격!

경청아 : 오오~

플레이어를 제외하고, 일동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

이를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플레이어.

한백지 : ...사람 무안하게 만드네.

정주율 : 축하해. 사실 너무 뻘했지. 이렇게 활약을 했는데.

경청아 : 응.

한백지 : 그야, 뭐...

정주율 : 그보다 말 놓아도 괜찮을까? 내가 존댓말하는 게 영 어색해서 말이야.

플레이어는 상관없다고 대답한다.

한백지 : 이미 말 놓고 있잖아.

정주율 : 히히, 그러게. 오랜만에 부원이 들어와서 들뒀나봐. 사실 우리 입부 테스트가 워낙에 어려워서 이번 생에 신입 부원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STORY

한백지 : 암, 애매한 각오로 들어와서는 안 되지. 요즘은 <라 프레임>하는 사람들이 스트리밍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역시 근본은 게임에 있으니까!

한백지는 의기양양하게 턱을 치켜든다.

경청아 : 참고로 나는 가뿐하게 통과.

손으로 브이를 만들어 보이는 경청아.

한백지 :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

정주율 : 하지만 테스트 같은 것 없이 무작정 사람 많이 받아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을 걸? 우리 백지 부장님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저래도 사람이 좀만 많아지면 바로 백짓장 처럼 하얘지거든.

한백지 : 하아?

정주율 : 동아리 이름이 '노스웨스트'인 것도 긴장하지 말고 쿨하게 가자고, 어디서 들은 영어 표현 가져와 놓고 우리 오기 전까지 땀만 뻘뻘 흘렸다니까!

한백지 : 야, 야! 하지마!

경청아 : 후후후.

한백지 : 청아까지...





STORY

정주율 : 하하하, 너무 우리 얘기만 했네. 플레이어는 라프레임을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잘하는 거야?

모른다고 대답하는 플레이어.

한백지 : 모른다라...

한백지는 중얼거렸지만 소리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정주율 : 응? 모를 정도로 많이 했다는 뜻인가?

플레이어는 말없이 천진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다.

경청아 :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주율 : ...혹시 아까 그 입부희망서 다시 볼 수 있을까.

경청아와 정주율은 빠르게 입부희망서를 훑어본다.

한백지 : 입부희망서라...

한백지는 다시 한 번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도 들리지 않았다.

정주율 : 시원고등학교 1학년 A반... 맞지?

경청아 : 응, 오늘 왔어.





STORY

정주율 : 맞아... 이미 입학 수속까지 다 밟은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플레이어 : 아?

정주율 : ...무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 같은 말이지.

한백지 : 기억상실증이라.. 후후후후후...

다시 한 번 중얼거리더니 혼자 웃기 시작하는 한백지.

한백지 : 으으, 더는 못 참아얏!

정주율 : 우왓, 뭐야. 왜 그래?

경청아 : 부장, 머리 이상해?

한백지 : 간만에 신입부원 들어와서 품 잡으려고 했는데! 주율은 자꾸 놀리기만 하고!
아예 내가! 부장이 할 말이랑 역할도 다 가져가고!

정주율 : 어어...

한백지 : 느닷없이 게임 잘 하는 신입도 들어와서 기대했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고! 입
부하기 싫어서 둘러대는 거지? 그냥 우리 동아리가... 내가 싫은 거지?!

경청아 : 부장, 피해망상.





STORY

한백지 : 다 필요 없어! 다 혼쭐을 내줄 거야! 게임 들어와!

한백지는 라프레임 접속 기기를 향해 발에 힘을 주어 걸어가더니, 곧장 게임에 접속한다.

경청아 : 이런, 이런.

정주율 : 아하하하... 여러가지 복잡하겠지만, 잠시만 어울려주자? 응?

하나 둘 접속 기기를 주섬주섬 집어들고, 플레이어도 참여한다.

라 프레임에 접속하고, 주율의 초대에 따라 들어간 공간에는 새하얀 정육면체가 둥둥 떠다니는 드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

한백지 : 지금 이 자리에서! 노스웨스트 PVP 대전을 선언한다!

정주율 : 아아, 역시...

경청아 : 바라던 바.

한백지 : 다 덤벼!

경청아와 정주율은 분노한 한백지의 기색을 살피느라 선불리 움직이지 못한다.

그 때, 플레이어는 한백지가 서있는 맵의 중앙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정주율 : 어어?





STORY

한백지 : 좋아, 신입...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갖고 논 배신자... 내 로켓런처의 첫 제물은 너다.

눈이 마주친 것으로 플레이어와 한백지의 대결이 성립한다.

플레이어는 한백지의 무차별 런처 공격을 능숙하게 회피한다.

이어서 이성을 잃은 한백지의 뒤를 잡고 공격하는데 성공한다.

한백지 : 아앗! ...이잇, 절대 못 져!

본인이 데미지를 입을 것도 각오하고 공중으로 로켓런처를 무차별 폭격하는 한백지.

플레이어는 절묘한 타이밍에 가드하여, 한백지의 최후의 수단까지 파훼한다.

자기 공격과 플레이어의 속공을 그대로 맞아버린 한백지는 가장 먼저 탈락하고 만다.

한백지 : 우우... 서러워...

경청아 : 다음은 나야.

정주율 : 이런, 구경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당해버렸네... 청아 의욕이 넘치나본데?

플레이어와 한백지가 대치하는 동안 경청아와 정주율도 승패를 가렸다.

승리한 경청아는 플레이어와 거리를 좁혔다.





STORY

그 전에 플레이어는 충격을 가했지만, 경청아는 가볍게 피하고 더욱 거리를 좁혔다.

당장이라도 닿을 것 같은 가까운 거리에서 쉴 새 없이 압박해오는 경청아의 공격은 한백지 보다 냉철하고 날카로웠다.

플레이어는 노스웨스트에서 가장 강한 것은 경청아라는 판단을 내리고 지금까지의 회피와 가드, 스킬 사용 등을 총동원하여 그녀와 대적한다.

경청아 : ...!

플레이어는 팽팽한 승부 끝에 승리한다.

다시 로그아웃 후 부실로 돌아온 노스웨스트.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다.

정주율 : 신입 대단하네 정말. 청아는 우리 학교에서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백지 : 나 맨처음으로 당하고... 부장 실격이야...

정주율 :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냥 우리끼리 재미로 한 건데! 나는 입부했을 때처럼 그냥 요령 좋게 피하다가 늦게 당한 거고. 그래서 신입! 우리 동아리 들어올 거지?

플레이어는 고개를 끄덕인다.





STORY

한백지 : ...정말?

정주율 : 봤지? 그럼 부장님! 정식으로 새 부원의 입부를 선언해줘!

한백지 : 앓, 으, 응!

한백지는 헛기침을 하고 목을 가다듬는다.

한백지 : 그럼, 입부 테스트를 훌륭히 통과한 플레이어를! 노스웨트의 신입 부원으로 정식으로 임명합니다!

박수를 치는 플레이어와 정주율.

정주율 : 멋지다, 우리 부장님!

한백지 : 놀리는 것 같아...

정주율 : 그럴 리가 없잖아? 같이 매점 가자! 백지 맛있는 거 사줄게!

한백지 : ...응, 좋아...

정주율 : 좋아, 다들 같이 가자!

한백지 : 딸기 우유도 사줘...



STORY

그렇게 플레이어의 입부와 약간의 소동을 마무리 하고 매점으로 향한다.

한편, 경청아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아까 전의 승부를 곱씹고 있었다.

경청아 : 졌다...

챕터#3

요약) 플레이어는 노스웨스트 멤버들에게 검은 그림자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눈치다. 그 때 복도에서 학생회 심이빈이 라프레임의 시원고등학교 채널에서 라이브가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한다. 게임 쪽을 좋아하는 노스웨스트 멤버들은 이런 홍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정주율은 재미있고 교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벤트니 보자고 한다. 한편 경청아는 먼저 가있어서 무대 설비를 세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얼떨결에 노스웨스트 멤버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노스웨스트 멤버들은 방청객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다. 공연이 끝나고, 플레이어는 무대 뒤편에서 아이돌 모습에서 학생회장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하음을 발견하지만 마음 속에 담아두기로 한다.

플레이어는 라 프레임에서 수상한 검은 그림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

정주율 : 검은 그림자? 딱히 짚이는 건 없는데.

한백지 : 그렇지? 라프레임은 버그 관리도 철저한 갓겜이잖아. 그런 버그는 초창기에도 없었을 걸.

STORY

그렇게 플레이어의 입부와 약간의 소동을 마무리 하고 매점으로 향한다.

한편, 경청아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며 아까 전의 승부를 곱씹고 있었다.

경청아 : 졌다...

챕터#3

요약) 플레이어는 노스웨스트 멤버들에게 검은 그림자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눈치다. 그 때 복도에서 학생회 심이빈이 라프레임의 시원고등학교 채널에서 라이브가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한다. 게임 쪽을 좋아하는 노스웨스트 멤버들은 이런 홍보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정주율은 재미있고 교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벤트니 보자고 한다. 한편 경청아는 먼저 가있어서 무대 설비를 세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얼떨결에 노스웨스트 멤버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어느새 노스웨스트 멤버들은 방청객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된다. 공연이 끝나고, 플레이어는 무대 뒤편에서 아이돌 모습에서 학생회장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하음을 발견하지만 마음 속에 담아두기로 한다.

플레이어는 라 프레임에서 수상한 검은 그림자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

정주율 : 검은 그림자? 딱히 짚이는 건 없는데.

한백지 : 그렇지? 라프레임은 버그 관리도 철저한 갓겜이잖아. 그런 버그는 초창기에도 없었을 걸.



STORY

경청아 : 혹시 그게 실력의 비결인가...

한백지 :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또 보이면 생각해보자. 자, 그럼 이제 2차 전에 들어가볼까...

경청아 : 앗, 나는 갈 데 있어.

한백지 : 그래? 바쁘네, 청아. 그럼 다음에 보자.

정주율 : 응, 그래! 다음에 봐!

경청아 : 바이바이.

멤버들에게 손을 흔들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경청아.

정주율 : 청아가 하는 알바가 좀 많아서, 종종 저렇게 사라지곤 하거든.

한백지 : 앞으로도 자주 볼 거야. 그러면 세 명이서라도...

??? : 여러분!!

한백지 : 깜짝이야!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라서 내다보는 노스웨스트 멤버들.



심이빈 :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시원고등학교의 마스코트 하나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다들 라 프레임 시원고 채널의 공연 스테이지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백지 : 으, 저 학생회 녀석들. 민폐란 것도 모르나봐.

정주율 : 사실 백지가 라프레임에서 스트리밍하는 걸 안 좋아해. 요즘은 게임 보다 그 쪽으로 유명한데 말이야.

정주율 : 정말 귀도 밝아~

정주율 : 너무 그러지 마. 또 신입이 애청자일 수도 있잖아? 봐본 것 있어?

플레이어는 아예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STORY

정주율 : 에, 정말로?

한백지 : 역시 게임 잘 하는 사람은 뭘 좀 아는구나!

정주율 : 그럼 이참에 하나 공연하는 거 구경 가자.

한백지 : 어째서?

정주율 : 사실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크, 신입이 좋아하면 따로 스트리밍 파는 파벌 만들 생각이었는데!

한백지 : 하아?! 그런 께심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정주율 : 으, 신입 따라와! 같이 보러가자!

한백지 : 잠깐, 내 눈 앞에서 내 부원 빼돌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

정주율 : 백지도 같이와! 어차피 라프레임 들어올 생각이었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보고 그래야지, 자꾸 그러면 안 그래도 없는 친구 더 없어진다?

한백지 : 앓, 아앓...

결국 한백지와 플레이어도 정주율에게 이끌려 라프레임으로 들어온다.

게임과는 다른 스트리밍 부문으로 들어와서 시원고등학교의 채널로 접속했다.
그곳에서는 무대 준비가 한창이었다.





STORY

방금 전까지 교내를 돌며 방송 홍보를 하던 심이빈도 어느새 들어와서 준비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한백지 :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잖아!

정주율 : 하하, 내가 너무 성급했나.

스태프1 : 거기 잠깐 나와줘요.

한백지 : 앗, 죄송합니다.

스태프가 간 곳에서는 무대 연출이나 조명 등의 설계에 대한 의논이 한창이었다.

한백지 : 나참, 이게 뭐라고 학교 돈까지 써가면서 무대 설치를 하는 거야? 그냥 저번에 썼던 것 다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정주율 : 이런 이런, 모르는 소리. 하나는 시원고등학교를 넘어서 주변에도 유명한 아이돌이야. 팬들의 기대에 맞춰주기 위해서는 매번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해야 한다고.

한백지 : 쉽지 않네.

정주율 : 봐, 저기 이하음도 보러 왔나봐!

한백지 : 뭐? 학생회장이?





STORY

정주율이 가리킨 곳에는 학생회의 심이빈과 학생회장 이하음이 무대 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하음은 멀리서도 날카로운 눈매가 돋보이는 사나운 인상의 소유자였다.

심이빈은 그런 그녀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고 즐겁다는 양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주눅이 든 것은 한백지였다.

한백지 : 음, 재는 왜 여기 온 거야.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정주율 : 아하하, 우리 동아리가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운영 관련해서 부장이 학생회로 몇 번 불러간 적이 있거든. 학생회장이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에 놀렸다나 뭐라나.

한백지 : 너가 그 자리에 있어봐야 해...


정주율 : 아무튼 그런 학생회장도 찾아올 정도로 이 공연이 화제라는 거지. 하하하!

한백지 :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정주율 : 학생회에 내가 아는 다른 애도 있는데 개는 없나 보네... 아!

한백지 : 왜 그래?

정주율 : 백지가 아는 얼굴도 있다.



한백지 : 음, 그렇게 달라붙어도...





STORY

정주율 : 한달동안 일케 노예가 될 테니까? 응?

한백지 : 으으으... 이번 만이야... 나중에 무르기 없기야...

정주율 : 플레이어도 괜찮지?

정주율이 눈을 반짝거리며 쳐다보았고, 플레이어도 별 상관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노스웨스트 멤버는 모두 팬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정주율 : 와아, 모두 잘 어울려!

경청아 : 음.

경청아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팬 티셔츠를 입고 야광봉까지 든 한백지의 표정은 좋아보이지 않는다.

한백지 : 굴욕적이야...

정주율 : 곧 익숙해질 겁니다! 분위기에 몸을 맡겨봐!

한백지 : 싫어...

경청아 : 신입, 이거 메줄게.





STORY

한백지와 정주율이 얘기하고 있는 틈을 타, 경청아가 굿즈인 스카프를 가져와 플레이어의 머리에 반다나처럼 둘러준다.

능숙하게 반다나를 만들어주지만 어쩐지 묶는 손에 제법 힘이 들어가있다.

경청아는 플레이어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경청아 : ...다음에는 안 질거야.

환복을 마친 노스웨트는 무대가 시작하기까지 잠시 기다렸다.

스태프들은 라프레임의 크래프팅 시스템을 활용하여 즉석에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청아는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전해들으면, 그간 쌓아온 라프레임 컨트롤 능력과 숙련된 일머리와 손재주로 금방 해결했다.

스태프2 : 거기, 일 안하고 뭐해!

한백지 : 네, 네? 저 말인가요?

스태프2 : 그래 어서 이거 날라.

한백지 : 네? 잠시만요! ...어째서 내가...

다른 노스웨트 멤버도 일부 거들어주어서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끝났고, 덕분에 도중에 방청객 아르바이트로 참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STORY

그리고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다.

하나 : 와줘서 고마워~ 모두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래할게!

한백지 :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니야?

정주율 : 실제로 귀여운걸! 또 이 분위기가 좋잖아! 우리처럼 하나 티셔츠 입은 사람부터 게임 장비 입고 온 사람까지 다 같이 즐기는 이 자리! 되게 묘하고 즐겁지 않아? 무슨 할로윈 같다니까?

경청아 : 오오.

정주율 : 봐, 청아도 신났잖아!

주변을 둘러보면 주율의 말대로 하나의 팬부터 라프레임 게임 유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있다.

언뜻 보면 모두 야광봉을 들고 있는 하나의 무리 같지만, 자세히 보면 뒤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혼돈의 장처럼 보이기도 하다.

이들이 하나의 리듬에 맞춰 춤추고 있다.

하나 : 오늘 공연도 여러분이 최고였어요! 저도 저희 시원고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한백지 : 드디어 끝났다...





STORY

정주율 : 도중에는 제일 열심히 야광봉 흔들던데? 이런데 오랜만에 와서 신난 거지?

한백지 : 아, 아니거든?!

다들 들뜬 상황, 플레이어는 무대 뒤편에서 이전에 보았던 검은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것을 발견한다.

낮선 이 장소에서 동질감이라도 느낀 듯, 플레이어는 검은 그림자를 쫓아간다.

하지만 플레이어의 손이 닿기 직전에 검은 그림자는 형체를 잃고 사라지고 만다.

??? : 오늘도 최고로 귀여웠어요!

그 때 앞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학생회 심이빈과 아이돌 하나이다.

하나 : 그런가..? 그렇다면 다행이고. 후, 어서 원래 옷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나가 아이돌 스킨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자 학생회장 이하음의 모습이 나타난다.

심이빈 : 다들 회장님을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 워메이지 말고 뺏어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제가 새로운 의상을 30종 정도 구상을 해봤는데...





STORY

이하음 : 잠깐, 잠깐! 알았어! 나중에 볼테니까... 조금 진정하자.

심이빈 : 네엿! ...

이하음 : ...말은 해도 돼.

심이빈 : 네엿! 헤헤, 회장님은 무대에서나 무대 아래에서나 최고로 멋있어요.

이하음 : 그 정도는... 고마워.

그렇게 말하고 둘은 어딘가로 걸어갔다.

예상치 못한 발견에 플레이어는 당황했지만 이 일은 언젠가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